

발포명령자·헬기사격·암매장 규명 마지막 기회

국방위 소위 통과 5·18특별법 주요 내용과 남은 절차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37년간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5·18 핵심의혹 규명을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률에 근거해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3년간 발포명령 책임자·헬기사격·희생자 암매장·신군부의 5·18 애국조작 등 5·18 관련 의혹 규명을 벌인 후 종합보고서(백서)를 펴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률안이 대안의회 처리돼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가 여럿이지만 사실상 법안 제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연내 처리 가능성에 긍정적인 표정이다.

◇조사기간 최대 3년…청문회도 개최=지난 11일 난항 끝에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의결된 5·18진상규명 관련 법률안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개 관련법안을 한데 모으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달아낸 대안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대안)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실종·암매장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규명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5·18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행방 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크게 6가지 범위다.

이를 위해 법률안은 15명을 위원으로

조사기간 최대 3년…청문회도

위원 15명 진상규명위 설치

민주·국민의당 “연내 처리”

하는 5·18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무처 직원도 최대 50명 둘 수 있다. 조사기간은 2년, 필요시 1년 연장에 최대 3년간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벌금형 등 형벌로 위원회 출석 및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5·18특조위가 관계인들의 조사 비협조로 조사에 난항을 겪는 것과 달리 어느 정도 강제성은 확보한 것으로 여겨진다.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기간 청문회도 개최할 수 있으며, 청문회 관련 벌칙조항은 더욱 강력하다.

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 출석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자료 등 물건 제출을 거부하는 관계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면책조항도 담겼다. 위원회는 매년 2회 보고서로 대통령과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민주·국민의당 “연내 법안처리”…남은 절차는=12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제히 5·18진상규명특별법안의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민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광주 시민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야당도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야권이 법 통과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5·18특별법을 발의했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의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은 갈등을 키우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각종 의혹과 진실을 밝힘으로써 갈등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제는 논란을 접고 국민 화합과 통합으로 가야한다”며 “남은 국회 절차에서도 여섯합 합의 정신과 국민통합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협력해줄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역점 법안이기도 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이 법률로 제정

되기까지는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국회 표결 등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13일로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의 통과에 대체로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회 표결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등 모든 정당이 법안 제정에 적극 지지 또는 협조하는 입장이어서 과반을 확보하는 데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법사위 심사가 될 것인만큼 관측이 많다. 법사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 모두 한국당 강성동, 김진태 의원이 각각 맡고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해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리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文대통령 “사드, 中안보 침해 의도 없어”

방중 앞두고 CCTV 인터뷰…내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4일간 이어지는 방중(訪中)을 앞두고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역지사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전 순방국 언론과 인터뷰를 갖는 관례에 따라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중국 국영 방송사 CCTV 프로그램 ‘환구시선(Global Watch)’에 출연했다. CCTV는 12일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 목적으로 사드를 도입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의도가 없다”면서 “중국이 사드 레이더의 성능 때문에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 우리도 역시 사드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거둬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며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제기하고 있는 ‘3불(不)’의 단계를 이행과 관련, ‘10·31 사드 합의’를 언급하며 “한중 양국은 합의 발표문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했다고 밝혔으며 양국 새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 미래 지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을 출발해 베이징에 도착한 뒤 재중국한국인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을 한다. 방중 둘째 날인 14일 오전에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의 우의를 다진다. 한중 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 확대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민만찬의 순으로 진행되며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문화 교류의 밤 행사도 이어진다. 15일 오전에는 북경대학에서 연설을 한 뒤 장터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주요 지도자를 면담하고 충칭으로 이동한다.

방중 마지막날인 16일 오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데 이어 천만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 회동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충칭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3박 4일간의 강행군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첫 개헌의총…“5·18과 촛불혁명 헌법 전문 반영에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동력 살리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의 견해차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모두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은 당 내부 의견을 정리, 향후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당과의 원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헌법 전문과 기본권’을 주제로 의총을 열었다. 오는 14일에는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에는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에는 ‘정부 형태’를 주제로 의총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의 정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훈식 원내대변

인이 전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의총에서는 헌법에 안전권·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정

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 환경권·보건권·주거권 강화 방안,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권의 주제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무안출발 ✈ 일본,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이제 여행의 시작점은 가깝고 편리한 무안공항입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7)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2017. 11. 27(월) ~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선착순 특가상품]

아마가세 펜션(1박)+특급호텔(1박) 499,000원~

[실속] 북 큐 슈 호텔 599,000원~

[품격] 북 큐 슈 료관 699,000원~

[품격] 야마구치 료관 699,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오사카 남쪽의 아름다운 해변과 온천으로 유명한 와카야마

2018. 1. 5(금) ~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품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고품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1,198,000원~

[골프] 시라하마, 와카야마 36홀 899,000원~

무안 ↔ 가고시마

검은 모래찻길과 사쿠라지마 화산을 즐길 수 있는 일본 남쪽의 아름다운 고장!!!

2018. 1. 18(목) ~ 주 3회 출발 / 월요일(3박4일) 목, 토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6:00) → 가고시마(17:20) / 가고시마(18:00) → 무안(19:20)

[특가상품(목요일 출발)] 가고시마(이비스키, 치라, 미야자키) 669,000원~

[품격] 가고시마, 가리시마, 이비스키 898,000원~

[고품격] 가고시마, 가리시마, 이비스키 1,148,000원~

[골프] 가고시마 36홀 899,000원~

무안 ↔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40) → 다낭(11:15)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50) → 무안(07:40)

※ 요금은 호텔 숙박금 기준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799,000원~ / 3박5일(금) 899,000원~

[노팁 · 노음선]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1,049,000원~ / 3박5일(금) 1,149,000원~

[노팁 · 노음선]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1,049,000원~ / 3박5일(금) 1,14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 공동조인 : 여행객 1인 기준, 여행지여행 기금(해외여행) : 1억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 1인 기준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입국료, 기차/기차도, 불사료, 선박관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